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로 지정예고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

'문수사 대웅전' '고운사 가운루' 보물된다

문화재청, 4월 9일 지정예고
조선 전 · 중기 공포양식 대웅전
계곡 위 대형 누각 "가치 높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4월 9일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주지 태효 스님)의 주불전(主佛殿)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이다.

문수사는 66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연기(緣起)설화를 바탕으로 문수보살과 문수도량 신앙적 특성을 반영해 그 위계가 잘 표현된 사찰로 알려졌다. 문수사창건기(1758년)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후인 1607년(선조 40) 중창됐다. 1653년(효종 4) 회적(晦跡) 성오화상(性悟和尙)이 또다시 고쳐지었는데, 그 다음해 1654년 제자인 상유(尙裕)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한 기록으로 볼 때 문수사 대웅전 또한 이 시기에 중창(重創)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다포계 맞배지붕 특징을 갖고 있으며 측면에 공포(栱包)가 설치된 매우 독특한 불교 건축물(정면 3칸, 측면 2칸)로 평가받는다. 5량 구조 내외 3출목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 전기 이후 양식과 전라도 지역 특색이 나타난다. 1653년(효종 4)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4면에 공포를 배열하고 충량(衝樑)과 활주(活柱)를 사용한 팔작지붕 형식이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춰 외부 의장 완결성과 장엄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 대웅전의 단청 역시 문양사적 특이함과 전통 무기안료와 아교 사용 등 천연재료 특성의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은 "2020년부터 꾸준히 대웅전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보물 지정을 위해 힘썼다"면서 "다포계 맞배지붕 등 득특한 특징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대웅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기쁘다"고 보물 지정예고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했으며 계곡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 '고운사사적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돼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禪명상' 주제 학술대회

5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5월 2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147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미래본부에서 발주한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토론의 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K-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종학연구소는 2023년 9~12월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禪명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스님과 학자들이 두루 참여, 총 5개의 주제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진본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국외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자헌 스님, 동국대 교법사) △명상앱 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은산 스님, 동국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 △고려대장경의 선관(禪觀) 경전 고찰(이진영, 동국대 역경원) △禪명상의 의미와 적용(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이 발표된다.

논평은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사 동하 스님, 한재희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동국대 WISE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혜주 스님, 정영희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강의초빙교수, 강은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나선다.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에 대한 성과보고이자 토론의 장"이라며 "K-명상의 지속화와 세계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상프로그램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禪명상'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2-6713-5141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연구소, 춘계 세미나 '명상과 힐링'

4월 26일, 중승대 자비관서
오철우 중승대 교수 등 발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차차석)가 4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포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춘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명상과 힐링'이다.

1섹션에서는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서산대사 선시에 나타난 힐링명상 고찰(오철우 중승대 교수) △〈능엄경〉의 명상적 특징과 그 치유적 성격(임병정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 석좌교수, 심일종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박사가 나선다.

손강숙 중승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되는 2섹션에서는 △초기 유가행파의 명상 체계와 그 치유적 의의(김재권 능인대학원대 교수) △〈천태소지관〉의 명상 체계와 그 치유적 특징(김선화 중앙승가대 교수)이 발제된다. 심준보 한국외대 인도학연구소 박사,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석좌교수가 논평한다.

임은호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50차 월례학술대회

4월 19일, 서울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이 제15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학술대회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불교 중도와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인도 반야경 주석가 하리바드라'를 주제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무위와 불교의 중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관한 고찰(이홍제, X-Thinking Co) △인도불교 주석전통의 수행론 개변-4선근 서술에 관한 하리바드라의 주석을 중심으로(혜융 스님, 중앙승가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류제동(서강대), 보일 스님(해인사), 방정란(경상대), 이길산(경남대) 박사가 함께한다.

이날 월례학술대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보조사상연구원' '법련사'로 검색. 문의 bojosasang@naver.com 임은호 기자

조계종·조폐공사, 불교유산 상품화 MOU

기념 메달 공동 제작·활용에 협력
진우 스님 "국민 관심 환기" 기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불교문화유산 보호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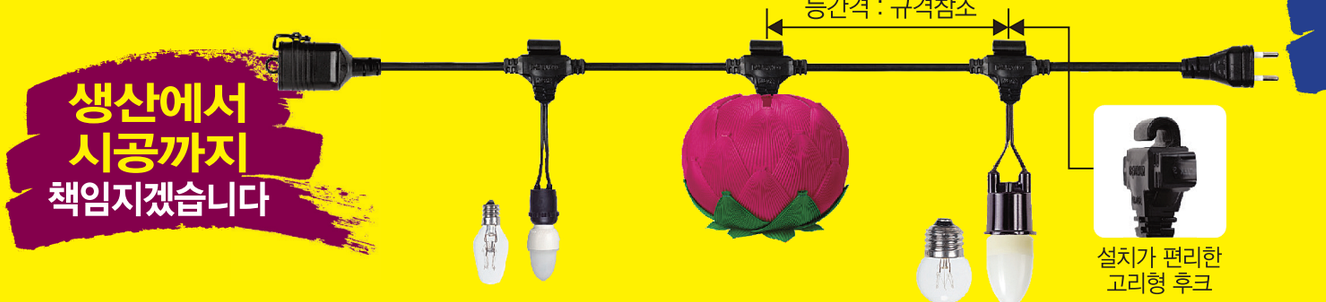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기념메달 제작 등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측의 적극적인 제의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 상품화를 위한 주제 선정 및 자료제공 △불교문화유산 주제 기념 메달에 대해 공동 전시·홍보 활용 △수익금 일부 불교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후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번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한국조폐공사와 상호 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찰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교구본사의 주요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념메달 제작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